

松巖 『龍蛇日記』의 문학적 특성 논의

최재호*

차례

- I. 서론
- II. 人物중심의 기술에 대한 논의
- III. 作者와 主人公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
- IV. 敘述始點에 대한 논의
- V. 결론

【국문초록】

松巖 李魯(1544~1598)의 『龍蛇日記』는 임진왜란 당시 招諭使였던 鶴峯 金誠一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된 매우 독특한 전쟁실기이다.

송암 『용사일기』가 지니는 문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당대 전쟁실기 대부분이 전쟁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이나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사체 형식이라는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둘째 송암 『용사일기』는 작품 속의 주인공과 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주인공과 작자가 일치하지 않아 작자가 객관적 시각을 견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작자는 전지적 입장에서 작자의 집필의도에 따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셋째 송암 『용사일기』는 현재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되지 않고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서 기술하는데 이것을 통해 작자는 작자의 의도대로 작품을 재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송암 『용사일기』가 당대 전쟁실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 육군3사관학교 국어학과 교수

있고 오히려 임병양란 이후 기술되었던 전쟁실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병양란 이후의 전쟁실기는 임병양란 당시 활약한 인물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었으며 작자와 주인공이 불일치하고,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사적들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이 같은 특징이 송암의 『용사일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송암 『용사일기』가 임병양란 이후에 등장하는 전쟁실기의 출발점이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주제어

전쟁실기, 용사일기, 송암(松巖), 학봉(鶴峯), 사적(事蹟), 작자, 주인공, 서술시점(敍述始點)

I. 서론

松巖 李魯(1544~1598)의 『龍蛇日記』는 『용사일기』라는 題名을 가진 임진왜란 전쟁실기 중 가장 먼저 학계에 알려진 작품이다.¹⁾

송암 『용사일기』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송암이 귀향 중 5월 초4일에 함양에서 招諭使 鶴峯 金誠一을 만나 학봉의 從事官·召募官·私儲官으로 활약하였던 당시의 기록을 정리한 전쟁실기이다. 송암이 『용사일기』를 저술한 목적은 ‘記金鶴峯事蹟’이라는 부기제명에서 드러나듯이 임진왜란 당시 학봉의 事蹟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이다. 송암은 학봉이 1590(선조23)년에 正使 黃允吉을 따라 일본을 다녀오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1593년 4월 陣沒되어 安葬되는 때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1) 松巖 『龍蛇日記』는 1960년에 釜山大學校 韓日文化研究所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전쟁실기의 경우 작자의 경험에 따라 크게 ‘從軍實記’, ‘扈從實記’, ‘避亂實記’, ‘捕虜實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실기가 종군실기이며 송암 『용사일기』 또한 종군실기로 분류할 수 있다.

송암은 영남초유사였던 학봉의 참모이다 보니 경상도 지역의 전황을 더 명확하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런 까닭으로 다른 종군실기보다도 당시의 상황을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송암이 南冥의 직전문인이기에 당시 대부분의 의병장을 배출한 남명학파의 활동상을 세밀히 기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송암 『용사일기』는 임진왜란 초기를 연구하는 史學 논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송암 『용사일기』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전혀 시도된 바가 없다.

전쟁실기 개별 작품에 대한 문학적 접근의 소홀은 단순히 송암 『용사일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쟁실기에 대한 문학계의 관심은 1970년대부터 있어왔지만 전쟁실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看羊錄』·『月奉海上錄』·『錦溪日記』·『亂中日記』·『壬亂日記』·『孤臺日錄』 등 매우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것은 문학작품으로서 보다는 史料로서 접근하려는 학계의 경향에 기인한 것이다.

송암 『용사일기』가 史料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문학연구의 자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이자 시발점이다.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 이유는 송암 『용사일기』가 다른 전쟁실기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문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송암 『용사일기』는 당시의 다른 전쟁실기와 비교했을 때 소재, 작자, 敘述始點²⁾에서 매우 큰 차이

2) 敘述始點은 작자가 처음 서술을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 敘述時點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서술이 처음된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始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별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송암 『용사일기』의 소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송암 『용사일기』의 소재가 전쟁의 일상 또는 큰 사건이 아니라 인물의 사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쟁실기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考究하고자 한다.

둘째 대부분의 전쟁실기는 기술하는 주체인 작자와 기술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이 서로 일치하는데 반해 송암 『용사일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다수의 전쟁실기가 일기체 형식을 빌어 현재라는 時點에서 기술된데 비해 송암 『용사일기』가 기술된 시기는 학봉의 死後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데, 敘述始點이 후대라는 점이 문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비록 영성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하여 전쟁실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人物중심의 기술에 대한 논의

송암 『용사일기』의 원제는 『松巖先生文集』에 있는 ‘鶴峯金先生龍蛇事蹟’으로, 鶴峯 金誠一의 事蹟을 기록하고 있다. 제명에서 밝혔듯이 인물의 행적을 전쟁실기의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당시 대부분의 전쟁실기들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실기는 크게 두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첫째는 전쟁실기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逐日에 따라 전쟁 속의 일상을 주된 소재로 삼는 경우이다. 임진왜란 전쟁실기 중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즉 작자는 전쟁에서의 매일 매일의 일상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중요 전투나 큰 사건을 소재로 삼아 그 사건의 始終을 상세히 기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쟁실기는 주로 記事體 형식을 빌어 기술되고 있다.

그런데 송암 『용사일기』는 대부분의 전쟁실기들처럼 전쟁의 일상이나 주요 사건을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의 행적을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즉 송암 『용사일기』는 기존의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와도 차이가 있고,²⁾ 또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기사체³⁾ 형식을 차용한 전쟁실기와도 거리가 있기에 이들과는 변별되는 전쟁실기의 하나의 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전쟁실기를 敍事의 한 장르로 보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⁵⁾

-
- 2) 송암 『용사일기』는 비록 『~일기』라는 표제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기체 형식으로 기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물의 사적을 기술하고 있다.
- 3) 安邦俊의 『隱峰野史別錄』 중 『晉州敍事』나 孫起陽 『公山誌』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주서사』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중요한 8일간 전투를 일기체 형식을 빌어 서술하고 있으며 『공산지』는 정유재란 당시 대구 팔공산 지역의 전투를 소재로 한 전쟁실기이다.
- 4) 기존 연구자들은 逐日을 중심으로 기술된 전쟁실기와 事件을 중심으로 한 전쟁실기만으로 전쟁실기를 분류하고 있으나 송암 『용사일기』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된 전쟁실기군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拙稿,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壬亂 戰爭實記를 中心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46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 5) 전쟁실기를 敍事로 보았을 때 배경, 사건, 인물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즉 전쟁실기는 戰場이라는 空間적 배경과 戰時라는 時間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戰鬪·遊亂·扈從·被虜의 특수한 경험을 사건이라 할 수 있고, 또 전쟁이라는 특수한 체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 요소는 전쟁실기를 이루는 축으로 작품 내에서 잘 융화되어 있다. 전쟁실기 내에서 서사의 3요소 중 하나의

송암 『용사일기』와 같이 특정한 인물의 행적을 소재로 삼아 증점적으로 기술한 전쟁실기는 주로 포로실기에서 나타난다. 포로실기는 주로 피랍으로부터 생환까지의 특수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와 함께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피랍부터 생환까지의 인물의 행적으로 송암 『용사일기』와 같은 인물 중심의 전쟁실기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인물의 행적이라는 특수한 소재를 다룬 송암 『용사일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송암 『용사일기』는 송암이 남명학과 同門인 大笑軒 趙宗道와 같이 鶴峯 金誠一의 幕下에서 침략자의 격퇴에 진력하면서 틈틈이 그의 見聞과 所感을 기록한 작품이다. 실기의 시작은 학봉이 庚寅年에 왕명을 받들어 正使 黃允吉과 같이 副使의 자격으로 일본에 使行한데서부터 起筆하여 癸巳年 학봉이 卍州公館에서 진물하여 고향 安東으로 返葬하기까지의 일로 끝나고 있다.⁶⁾

먼저 학봉을 중심으로 기술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송암 『용사일기』의 첫 면을 보면 『龍蛇日記』라는 題名 아래 ‘記金鶴峯

요소가 특히 부각될 수 있지만 우위에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인하여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에서는 시·공간적 배경이 부각되어 전쟁의 일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전쟁의 일상이라는 배경이 부각된다고 해서 전쟁의 일상을 경험하는 인물이나 일상 안에서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가 주로 특수한 경험 즉 사건만을 부각시켜 기술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간과 같은 배경이 배제하고 기술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물 중심으로 기술되는 전쟁실기 또한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배제한 채 기술할 수는 없다.

6)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의 年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상우도 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한 송암의 날카로운 분석과 取舍選擇이 있으며 설명이 있어서 하나의 종합된 紀事本末을 이루고 있다: 韓日文化研究所, 『譯註 龍蛇日記』,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1960, pp.2~3.

事蹟'이라고 2行으로 細註가 되어 있다. 제명에서도 드러나지만 학봉 김성일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송암 『용사일기』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첫 면에는 학봉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공의 이름은 誠一이고 字는 士純이며 姓은 金씨이니 聞韶派系로서 대대로 벼슬살이한 집안이며 永嘉府의 臨河縣에 살았다. 공은 일찍 退溪 李선생의 문하에 수학하여서 모나고 날카롭고 심각하고 엄격한 성품을 함양하고 고르게 잡았다. 타고난 천분이 비록 곧았다 하더라도 실천 履修한 공도 많았다.

갑자년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무진년에 文科 大科에 급제하였다. 內翰, 天曹를 지내고 玉堂에 뽑혀 華要를 지나 一代의 名臣이 되었다. 능히 남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바를 말하며 강직한 지조와 충의스러운 지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였다.⁷⁾

송암 『용사일기』가 다른 임진왜란 전쟁실기와 변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송암 『용사일기』의 경우 다른 전쟁실기와는 달리 작품 내 주인공인 학봉의 출생과 가계, 소속 문하 및 官歷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학봉의 사적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는 작자의 충실한 기술의식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면에서는 학봉의 기본적인 약력에 이어서 황윤길과 같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온 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경인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고 절개를 굽히지 않아서 氷蘖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돌아와서는 곧 崔정사 영경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공일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黃允吉이 上使였고 許箴

7) 公諱誠一 字士純 聞韶系 世官族 居永嘉府之臨河縣 公嘗遊退溪李先生之門 廉刻厲 涵而揉之 天得之分雖貞 而踐修之功亦多 甲子司馬 戊辰及第 入內翰 出天曹 遷玉堂 敷歷華要 爲一代名臣 能言人所難言 剛直之操 忠義之標 國人皆稱之 ; 李魯, 『龍蛇日記』, 一.

이 書狀官이었다. 공은 매사를 관장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만 하고 우역곡 절한 수단을 쓰지 않아 외롭게 동떨어져 있었으므로 일본이 군사를 다스려서 장차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기미를 알지 못하였다.⁸⁾

학봉의 간단한 이력 이후에 학봉이 경인년에 일본에 府使로 갔다 온 일을 따로 기술한 이유는 壬辰年(1592)에 발발된 임진왜란과 庚申年(1590)에 일본에 使臣으로 간 일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학봉은 경신년의 일로 인해 많은 口舌數에 오르내리고 있었기에 작자인 송암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변호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어서 辛卯年(1591) 학봉이 弘文館 副提學으로 箭子를 올려 時事를 극론한 부분을 높게 기술하고 있다. 신묘년의 기사는 송암 『용사일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학봉의 사적이 경신년부터 시작되고 있기에 신묘년의 치적 또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2면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조정에서 倭僥을 걱정하여 학봉을 慶尙右兵使로 임명한 내용과 학봉이 일찍이 “두려워할 것은 天命과 人心이요, 섬 오랑캐는 족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 자신감을 피력한 일, 갑작스런 전황의 불리함으로 인해 선조가 “金誠—이 일찍 말하기를 일본은 근심할 것이 없다 하더니 이제 크게 내침하였으니 나는 장차 김성일을 鞫問코저한다”하며 義禁府에 명을 내려 학봉을 잡아오게 한 일, 이에 홀로 柳成龍만이 進言하여 선조를 설득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학봉의 주된 사적 외에도 細註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8) 庚寅 使日本 不辱命 不屈節 永蘖藉藉 及還 卽直崔徵士之寃 公之使日本也 黃允吉爲上使 許箴爲書狀 公—以直道管行 不用旁蹊曲徑 孤介特立 故不知治兵 將犯之漸 ; 李魯, 『龍蛇日記』, 一.

첫 번째 세주는 학봉이 경상우병사에 임명되어 경상우도로 떠날 때 동년 벗인 崎侘子가 밤에 찾아와 詩를 지으면서 학봉을 위로하는 場面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송암 『용사일기』는 철저히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당시에는 송암과 학봉이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한 시기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세한 기술이 가능한 것은 송암이 학봉에게 직접 이 사실을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라 추정한다. 즉 이 장면을 통하여 학봉과 송암 간의 친밀도와 학봉의 個人史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송암의 치밀성을 엿볼 수 있다.⁹⁾

두 번째 세주는 조정이 전란으로 어려울 당시 조정의 대신들의 人事 현황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에 李山海는 領議政이고, 柳成龍은 左議政, 李陽元은 右議政이었으며, 洪汝諱은 兵曹參判, 邊應星은 左道防禦使, 李鎰은 右道防禦使이고 申砮으로서 大將을 삼고 金汝物로 從事官을 삼아 서울의 장정을 징발하였는데, 사대부들은 각각 전마 한 필씩을 내어서 출전하게 하였다.¹⁰⁾

송암은 기본적으로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용사일기』를 기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임진왜란 당시의 여러 정황 또한 놓치고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단 송암 『용사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임진왜란 전쟁실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 외에도 風聞으로 듣거나 또는 자신이 취득 가능한 모든 자료들

9) 세주에는 학봉의 동년 벗인 崎侘子가 지은 시의 내용까지도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10) 時李山海爲首台 柳成龍爲中台 李陽元爲右台 洪汝諱爲兵曹參判 邊應星爲左道防禦使 李鎰爲右道防禦使 申砮爲大將 金汝物爲從事官發長安丁壯人 士大夫家 各出戰馬一匹 以赴之；李魯, 『龍蛇日記』, 一 ~ 二.

을 자신의 전쟁실기에 기재하려는 행동이 그것이다. 모든 전쟁문학이 그러하듯이 전쟁실기 또한 전쟁에서 死線을 넘나드는 급박함 속에서 기술되었다. 그래서 작자의 서술의도 또한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쟁실기의 서술의도 중 가장 큰 것은 주로 전쟁의 과정에서 겪은 개인의 체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작자의 기록의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 사람에 대한 鑑戒의 의도 또한 많은 작품에서 드러난다. 이러하기에 전쟁실기는 다른 문학보다 기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바탕으로 서술이 되었으며 이것이 그대로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다.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작자인 송암이 임란 직전까지 관료의 입장이었으며 작품의 주인공인 학봉이 현직 관료라는 점에서 당시 조정의 전란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이 기술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것에는 또한 자신의 기록이 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公的인 실기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감추어져 있다. 송암의 이러한 욕구는 그대로 반영되어 송암 『용사일기』의 내용 중 敎書, 狀啓, 檄文 등 公文書가 군데군데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송암의 기록에 대한 욕구로 인해 송암 『용사일기』의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하되 부차적으로 전국의 戰況이나 조정의 정황이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다. 학봉이 중앙 정계에 있었을 때는 중앙 정계의 일이나 전국의 전황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지만, 이후 학봉이 경상우도에 부임한 뒤로는 경상우도의 전황 중심으로 내용이 국한된다.

11) 『용사일기』에는 본문 외에도 「龍蛇日記序」, 선조가 내린 「敎慶尙右道土民等書」, 「上天將啓」, 「龍蛇日記跋」 등으로 되어 있다. 『용사일기』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敎慶尙右道土民等書」가 먼저 기재되어 있고, 실기 본문에도 이 교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이것은 송암이 충실하게 학봉의 사적을 따라 송암 『용사일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봉의 시야가 전국에서 경상우도로 좁아지다 보니 송암이 기술하는 범위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右兵使 曹大坤은 대군을 거느리고 海望原에 주둔하면서 金海가 도륙됨을 가서 구하지 않고 황망히 도망치려다가 공이 이르매 소스라치며 맞아 읊하고는 문득 버리고 도망하려늘 공이 준엄한 말로 책망하기를 “장군은 한 지방을 맡은 대장으로서 군대를 머물고 진격하지 않아 金海城을 함몰케 하였으니 그 죄상은 목을 베어 마땅하다. 더구나 世臣宿將으로서 이 참극한 변을 당하여서 의리상 달아나지 못할 것이 아니냐”고 하니 大坤은 낮빛이 새빨개졌다.¹²⁾

경상도에 도착하자마자 학봉은 金海城을 버리고 도망가려는 右兵使 曹大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한다. 官軍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노출시키는 장면이기도 하다. 뒤 이은 장면에서는 관군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더욱 강조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순찰사 軍官 金敬老는 적정을 염탐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이나 절반 길도 못가서 적의 정찰대를 멀리서 보고 말을 달려 되돌아와서 칼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고향쳐 말하기를 “적이 우리 배후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에 一軍이 놀라서 무너졌다. 大坤이 공과 의자에 서로 마주보고 걸터앉았다가 일어나 말을 타려고 하거늘 공이 세 번이나 불러서 중지시키니 끝내 말에 매달려서 오르지도 못하는 지라 그 裨將이 추켜올려 주니 곧 앞서 달아났다.¹³⁾

12) 右兵使曹大坤 領大軍 屯于海望原 不往求金海之屠 公至 則錯愕迎揖 便欲棄去 公峻辭責之曰 將軍以闔帥 屯兵不進 使金海見陷 罪當行形 況以世臣宿將 當此劇變 義不可遁 大坤色赭 ; 李魯, 『龍蛇日記』, 二.

13) 巡察使軍官金敬老 遣來覲賊 未半途 望見哨掠軍來 躍馬回馳 揮劔大聲 呼曰 賊至我後 於是一軍崩駭 大坤與公對踞胡床 起將跨馬 公呼而止之者三 未乃攀馬不能騎 其裨扶上之

위의 장면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말만을 듣고도 조대곤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는 도망하는 장면이다. 위의 도망하는 장면은 매우 劇的이라 할 수 있는데, 한 道의 軍權을 쥐고 있는 장수가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말에 오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裨將이 추켜 올려주자 앞장 서서 도망을 하는 장면이다. 무능한 관군의 모습을 극도로 戲畫化하였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봉의 관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봉은 무능한 관군에게도 질책보다는 설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招諭使라는 학봉의 직책과도 연관이 있으며, 학봉의 뛰어난 人品을 부각하려는 하나의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장면에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아직 학봉과 송암이 만나지 못하던 시기였는데,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며 또한 극적이라는 것이다. 장면이 이렇게 사실적이며 극적인 것은 송암이 학봉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송암이 어떤 효과를 노리면서 이 장면을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묘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봉과 조대곤은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우병사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우병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 사람이지만 적의 침입 앞에 대처하는 자세는 사뭇 달랐다. 즉 학봉과 조대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학봉의 뛰어난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일종의 抑揚을 활용하여 학봉을 顯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송암은 『용사일기』에 부기된 通文, 檄文 등을 활용해 학봉의 뛰어난 업적을 객관화시키는 자료로써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송암과 대소현이 작성한 통문의 내용 중에서 “하물며 임금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시던 날에

卽先馳去；李魯，『龍蛇日記』，二.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시는 교서를 내리시고 별도로 忠良한 신하를 가려서 특별히 招諭使로 보내셨다. 綸音이 한 번 내리자 듣는 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초유사의 격문이 미치는 곳에 보는 사람은 응당 죽음을 생각할 것이다.”¹⁴⁾라는 부분 등은 학봉에 대한 송암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학봉이 초유사로 임명된 일을 살펴보면 통문에 기술된 것처럼 宣祖의 명철한 사리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時勢를 정확히 판단한 왕세자의 권유에 의해 蒙塵을 가던 당일에 급작스레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봉이 통문에서 높이 평가된 이유는 학봉의 招諭 활동에 名分을 부여하기 위한 작자 송암의 배려로 보여진다. 송암은 『송암일기』 본문뿐만 아니라 부기문을 통해서도 작자의 저술의도를 부각시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남 지역의 초유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부터는 자연히 학봉의 사적에 대한 기술은 영남 지역의 의병활동과 전황에 비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에도 송암은 학봉의 특이한 능력·인물됨·경상우도 사립의 학봉에 대한 무한한 신뢰¹⁵⁾ 등을 지속적으로 등장시켜 작품 속에서 주된 소재가 학봉의 사적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되던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의 죽음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중단을 맞이하게 된다. 癸巳年 4월 19일에 疫疾로 머리를 앓기 시작하던 학봉이 4월 그믐날 갑자기 逝去하게 되자 학봉의

14) 況主上西幸之日 下哀矜惻恒之教 別揀致命之臣 特遣招諭之使 綸音纒降 聞者 莫不墜淚 星諭所及 見者 應思殉首；李魯, 『龍蛇日記』, 十.

15) 송암 『용사일기』에는 학봉이 관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의병장 손인갑과 정인홍의 아들이 무卒할 것임을 예견하기도 하여 학봉의 범상함을 드러낸다. 또한 전쟁터를 벗어난 무능한 관료의 주검에 壽衣를 직접 보냄으로써 드러나는 학봉의 인물됨을 부각시키고, 학봉이 경상좌도로 부임하자 경상우도의 민심이 들끓었다는 내용과 경상우도민의 학봉에 대한 존경이 상소문으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학봉의 뛰어난을 놓치지 않고 있다.

장례과정과 학봉에 대한 추모를 마지막으로 송암 『용사일기』는 끝을 맺는다.

‘記金鶴峯事蹟’라는 부제에 충실한 송암 『용사일기』는 일반적인 전쟁실기와는 달리 인물 중심의 전쟁실기라는 점에서 문학적 의미가 매우 높다. 또한 작자인 송암이 그 저술의도에 매우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확인하였다.

Ⅲ. 作者와 主人公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

전쟁실기 대부분은 자신의 전쟁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직접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송암 『용사일기』는 전쟁실기의 기술주체인 작자와 전쟁실기의 기술대상인 주인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다.¹⁶⁾ 즉, 작자인 송암이 주인공인 학봉의 사적을 대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품 내에서 작자와 주인공의 이중적인 시각이 등장하거나, 작자 중심의 기술이 이루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송암 『용사일기』가 지니고 있는 작자와 주인공의 불일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황패강은 ‘正史와 같이 公式인 서술만 시종한 實記類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後人이나 後孫들이 先人이나 先祖를 顯揚하려는 목적에서 제작한 까닭으로 당사자의 생생한 체험과는 거리가 없을 수 없고, 자신의 체험을 서술한 실기와는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대에 직접 전쟁을 경험한 인물에 의해 기술된 전쟁실기와 후대에 기술된 실기류와는 차별화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황패강의 논의를 받아들여 전쟁실기를 당대 직접 전쟁을 경험한 인물에 의해 기술된 작품들로 규정하고자 한다. 송암 『용사일기』는 전쟁이 일어난 당대에 기술된 전쟁실기이면서 작자와 주인공이 불일치하는 매우 이례적인 전쟁실기라 하겠다.

임금이나 왕세자의 扈從임무를 수행하면서 기술하는 호종실기의 경우,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신보다는 임금이나 왕세자에 대한 내용이 기술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작자는 자신을 1인칭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임금이나 왕세자의 행적을 기술한다. 즉, 일반적인 전쟁실기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송암 『용사일기』에서 송암은 자신을 스스로 3인칭화하여 작품 내에서 ‘魯’ 또는 ‘李魯’라는 인물로 등장시킨다. 반면, 학봉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작자가 작품 내에서 스스로를 3인칭으로 노출할 경우 기술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는 기존의 다른 전쟁실기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관성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작품을 살펴보면 이 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이 일본에 府使로 갔던 159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작자인 송암과 주인공인 학봉이 처음 만나는 시점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5월 4일이다. 즉 1590년에서 시작하여 1592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기술은 송암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작자가 기술한 것이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유추하여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앞의 장에서 논의하였던 장면 중 하나인 학봉이 경상우도로 떠나기 전날의 장면을 살펴보자. 학봉이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어 경상우도로 떠나기 전 동년 벗인 崎侘子가 밤에 학봉을 찾아와 詩를 지으면서 학봉을 위로하는 場面은 송암 『용사일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는 기궤자가 지은 詩의 내용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학봉과 기궤자가 밤에 만나 사사로이 詩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逸話임에도 불구하고 송암

『용사일기』에 자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당시는 송암이 학봉과 만나지 못하였던 터라 더욱 그러하다. 송암과 학봉이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송암과 학봉의 친밀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송암은 학봉에게서 이 逸話를 직접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기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의 장에서 논의했던 무능한 경상우병사 조대곤과 학봉의 만남을 묘사하는 장면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즉 송암이 학봉과 조대곤의 만남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상반되는 송암의 학봉에 대한 好感과 송암의 무능한 관군 장수에 反感에 의해 사실적 기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면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암 『용사일기』는 제명에 ‘~日記’라고 되어있지만 제명과는 달리 일기체처럼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체 내용 중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작자인 송암은 일자를 기재하는데 송암이 학봉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 일자가 처음 나타난다.

五월 초나흘 공은 함양에 이르렀다. 군수 李覺은 공관에 우두커니 앉아 있고 단지 늙은 아전 몇 사람이 뜰 아래 보일 따름이었다. 전 현령 趙宗道와 전 直長 李魯가 기약없이 모이니 공은 우연히 서로 만남을 못내 기뻐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도와주심이다”라고 하였다.¹⁷⁾

17) 五月 初四日 公至咸陽 郡守李覺 坐嘯公館 只有老吏數人 見於庭 前縣令趙宗道前直長李魯 不期而會 公邂逅相遇 喜不自勝曰 是天贊我也 ; 李魯, 『龍蛇日記』, 五.

이 장면에서 작자는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하고 있으며 학봉 또한 객관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송암은 학봉의 속내를 전지적 작가시점을 통하여 노출하고 있다. 학봉은 송암과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송암은 구체적인 일자까지 언급하면서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암 『용사일기』는 작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기술한다는 점이다. 작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술한다는 것, 특히 주인공의 개인적인 일화까지를 목격하지 않고 기술한다는 것은 작자와 주인공이 그 만큼 친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송암이 스스로 堅持한 3인칭으로서의 객관성은 무척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작자는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3인칭의 視點을 뛰어넘는 전지적 시점에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다음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암 『용사일기』는 다른 전쟁실기보다 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은 바로 경상우도의 대표적 의병장인 忘憂堂 郭再祐와 무능한 관군의 대표인 金晬와의 갈등이다.

망우당과 김수는 격문과 장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낼 만큼 갈등이 심각한데 송암은 『용사일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망우당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학봉의 중재로 표면적으로는 해소된다.

무능한 관군에 대한 의병장의 반감은 다른 전쟁실기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송암 『용사일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특히 특징인 물 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이것

은 작자인 송암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려면 될 것이다.

신묘년 여름에 합천사람인 전 현감 文德粹는 나이 八十에 가까우나 시국을 내다보고 근심과 통분함을 참지 못하여 監司 김수에게 글을 올려, 邊將과 수령들이 모진 형벌과 가림주구로 나라의 근본을 뽑는다고 극론하니, 김수가 크게 화를 내어 병사 申砮와 더불어 그를 豪強이라고 장계하였다. 그 때 합천군수 田見龍은 그 蛇蝎과 같은 독과 바다와 같은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고을이 장차 빌 판인데 또한 덕수를 심히 미워하고 반드시 무거운 죄에 몰아넣으려 하여 수의 하는 일에 찬성하니 대저 건륭은 수와 동년생이었다. 덕수를 三嘉에 옮겨 가두고 화가 장차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생질되는 李魯는 그의 원통함을 조정에 고소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¹⁸⁾

그 이유는 송암이 바로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즉 무능한 관군의 대표인 김수·전견룡과의 갈등 때문이다. 송암과 김수·전견룡과의 갈등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송암 『용사일기』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후 송암과 김수·전견룡 간의 갈등은 기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송암을 대신한 대리인들이 김수·전견룡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 있었던 이는 바로 망우당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김수가 망우당을 무계하여 올린 장계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8) 辛卯夏 陝川人前縣監文德粹 年近八十 目睹時事 不在憂憤 上書于監司金晬 極陳邊將守令嚴刑剝害 先拔邦本云云 晬大怒 與兵使申砮 以豪強狀啓 時陝川守全見龍 蛇蝎之毒 谿壑之慾 民不堪命 邑將空虛 亦甚疾之 必欲陷于大罪 替而成之 蓋與晬同年也 移囚三嘉 禍將不測 甥姪李魯 欲告寃于朝 戾京未還 ; 李魯, 『龍蛇日記』, 五.

재우는 곧 전 直長 李魯의 사위이고, 魯는 전 顯監 文德粹의 삼촌질인데 덕수가 신에게 글을 올려 道主·關帥·守令·邊將을 모두 비난하였기에 신이 兵使 申砮과 더불어 장계를 올려 죄 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덕수가 신을 원망하게 되었고, 재우가 남의 咐囑함을 듣고서 이와 같이 불쾌한 짓을 한다.¹⁹⁾

망우당은 송암의 사위이고, 송암은 문덕수의 조카라는 내용과 함께 망우당이 남의 咐囑함을 듣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내용이다.

망우당과 김수가 갈등의 겪는 사이에 경상우도 사족 사이에 돌던 통문에 이런 내용도 언급된다.

격문을 곽에게 전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마음대로 풀고자 함은 김경눌이 이노로 더불어 틈이 생긴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를 두고 노를 엿보았으나 그 틈을 타지 못하였는데, 마침 이때를 당하여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뻐하였을 것인데, 문득 먼저 격문을 보고 혼잣말로, “곽재우의 첩은 이로의 딸이다. 노를 죽임은 이때다”라고 하며 노를 陰嚇한 괴수로 삼고, 곽으로 使嚇당한 사람으로 삼으니²⁰⁾

위의 내용은 경상우도 사족들이 작성한 것으로 갈등의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기에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이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의 부하인 김경눌은 송암과 오래전부터 舊怨이 있었으며, 망우당과 김수가 갈등이 있음을 이용하여 망우당을 제거함으로써 송암 또

19) 再祐卽前直長李魯之女壻 魯卽前縣監文德粹之三寸姪也 德粹獻書於臣 歷詆道主關帥守令邊將 臣與兵使申砮 狀啓請罪 故臣爲德粹所怨 再祐聽人所囑 爲此不軌 ; 李魯, 『龍蛇日記』, 二十八.

20) 傳檄於郭 欲逞私憾者 金景訥與李魯有隙久矣 窺魯多年 未乘其隙 適逢此時 喜行胸臆 忽見前檄 心語口曰 郭妾李女也 殺魯者其在此乎 以魯爲陰嚇之魁 以郭爲見嚇之人 ; 李魯, 『龍蛇日記』, 三十三.

한 제거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즉 표면에는 김수와 망우당의 갈등만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김수와 송암 간의 갈등 또는 김경눌과 송암 간의 갈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송암은 작품 내에서 가능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3인칭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수와 망우당의 갈등을 기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의 갈등을 망우당에게 그대로 투영시켜 김수와 대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작품을 통해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송암 『용사일기』에서 학봉의 입장에서 본 인물평도 등장하는데, 이 인물평에서는 好不好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역시 실상은 송암의 입장에서 본 인물평이라 유추할 수 있다. 송암 『용사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학봉의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은 작자인 송암과 송암의 사위인 망우당 정도이다. 특히 학봉의 뛰어난 사적 못지 않게 망우당의 인물됨이나 전공, 훌륭한 인품 등이 자주 거론된다. 이것은 작자인 송암의 의도된 계산으로써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김수와 대립하고 있는 망우당에 대한 배려이며 망우당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송암 『용사일기』는 작자와 주인공이 불일치하는 특이한 전쟁실기로 작자와 주인공의 불일치가 반드시 작자의 기술대상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작품에서 확인하였다. 즉 작자와 주인공이 매우 친밀한 경우 주인공에 대한 호감이 작품에 충분히 드러날 수 있으며 또한 작자의 기술의도에 의해 주인공이나 작중 인물들의 언행이 작자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부각되거나 은폐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암 『용사일기』는 송암이 학봉을 사적을 3인칭의 입장에서 매우 객

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 전지적 입장에서 작자의 집필의도에 의해 철저히 계산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고 흥미로운 작품이다.

IV. 敘述始點에 대한 논의

전쟁실기 중 대부분이 일기체 형식을 빌어 전쟁의 체험을 기술하고 있다. 송암 『용사일기』는 그 題名에도 불구하고 일기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인물 중심의 사적에 따라 전쟁실기를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가 끝나는 시점은 작자가 집필을 중단하는 시기인데 반해 인물중심의 전쟁실기의 결말은 주로 주인공과 관련된 결정적 사건에 의해 종결될 때가 많다. 앞에서 인물중심의 전쟁실기 중 대표적인 작품들이 포로실기라 논의한 적이 있는데 포로실기의 경우 주인공이 포로생활을 마치고 생환하는 것이 작품 내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그것은 결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송암 『용사일기』는 포로실기에 속하지 않으며 작품 내에서 극적인 장면 또한 드물다. 결국 송암 『용사일기』는 주인공인 학봉의 죽음이 결말과 연관되어 있으며 작자와 주인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주인공의 죽음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말을 알고 기술한다는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를 비롯한 인물중심의 전쟁실기는 매일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와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전쟁실기와는 敘述始點에서 차이가 있는 송암 『용사일기』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²¹⁾

21) 이에 대한 논의는 拙稿『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경북대학교 퇴계

현재 문학작품에 관한 연구경향을 보면 작품을 쓴 時期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담론’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고전문학 내에서는 작품을 쓴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허구가 아닌 자신의 생체함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전쟁실기에서는 그 작품이 정확히 언제 기술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매일 매일 달라지는 특수한 경험을 현재라는 서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하였는지, 아니면 전쟁 속에서의 특정한 경험을 기억에 의존하여 과거의 한 事件으로써 기술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²²⁾ 이는 학계에서 간과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일기체와 같은 매일 매일의 기록이라면 그 기록에는 미래가 아닌 과거 또는 현재만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²³⁾ 후자의 경우처럼, 특정한 사건 이후에 기술되었다면 그 결말, 즉 미래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결말을 향해 기억에 보존된 표상을 중심으로 작자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변형 및 가공이 가능하다.²⁴⁾ 즉 후자의 경우 작자의 의지에 의해 작품 내에서 드러냄과 감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연구소, 2010.2)III장 2절 ‘敍述始點에 따른 분류’를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기술하겠다.

22)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할 수 있는 양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중국에는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 느끼게 된 감정 또는 이미지만을 기억하게 된다.

23) S. 채트먼/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談論(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0, p.192.

24) 李琛衍,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p.55.

25) 吹霜煦露 寒暑筆端(이미 얼어 붙은 것과 이슬에 적셔진 것을 입김으로 녹이고 말리려는 것과 같은, 즉 추움과 더움을 붓으로 조작하는 것) :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작성하면 歪曲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劉總 지음, 최동호

임진왜란 전쟁실기도 사실 상 매일 매일 일상의 기록이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된 전쟁실기와 전쟁 이후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된 전쟁실기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가 없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⁶⁾

매일 매일 전쟁의 일상을 기록한 내용과 시간이 지난 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전쟁 중의 일상을 기술한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매일 매일을 기록하는 경우 인간의 망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고, 시간이 흐른 후의 기술은 기억에 의존하여 그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기술할 수밖에 없기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를 하더라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억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의 정신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억이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억에 의한 모든 경험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같은 시간·같은 공간·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일지라도 개인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²⁷⁾ 또한 일기체 형식의 전

역편, 『文心雕龍』, 민음사, 1994, p.211.

26) 전쟁실기가 史實을 기반으로 둔다는 점에서 ‘史’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 魏晉南北朝시대의 문예비평가인 劉勰도 역사서술에 있어 역사와 역사서술 실제 기록 時點의 차이를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위의 책, pp.208~ 209의 내용을 최재호,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p.252에서 재인용.

27) 전자가 매일 매일의 일상에 대한 내용을, 현장성과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하였다면, 후자는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건을 통해 얻게 된 기억된 이미지(image)만이 작자에 의해 감정이나 사상에 의해 정제된 후 기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일상의 기록형식 또한, 100% 현장성과 현재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성을 담보할 수는 절대 없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그것을 실제 서술하는 시간 사이의 間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간극을 통해 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기억의 기술은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담론의 시간)과 보통 과거시제를 취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시간, 즉 이야

쟁실기는 현재의 일상을 기록하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플롯의 전개가 어려워 보이는데 반해, 특정한 사건이 마무리 된 후 기억에 의존하여 이미지를 기술되는 전쟁실기는 그 사건의 시작 뿐 아니라 그 결말까지도 알고 기술을 시작한다. 거기에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충분히 개입될 여지가 있다. 즉 이러한 문학들은 대표적 서사물인 小說처럼 플롯의 전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일상에 대한 기록은 년, 월, 일에 맞추어 기록된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를 선호하고,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기억에 의존한 기술은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가 많다. 일기체 전쟁실기는 작자의 체험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작품이 끝이 나고,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논리적인 체계와 플롯의 전개가 있기에 뚜렷한 결말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변별된다.

대부분의 기사체 전쟁실기는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기술로, 실제 행위의 시간과 서술되는 시점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행위의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의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있는 작품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는 매우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배제되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상에 대한 기록과 기억에 의존한 기술 사이에는 망각이라는 장애물이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충분한 시간의 간극은 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개입할 여지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최재호, 위의 논문, p.253.

28) 일상에 대한 기록은 플롯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롯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펼쳐나가는 것(displaying)이라 할 수 있으며, 기억에 대한 기록은 사건의 결말을 알고 진행하기에 플롯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unraveling)으로, 둘 다 문학성을 내재하고 있다. : 같은 논문.

송암 『용사일기』의 경우 학봉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학봉의 사후 4년 뒤에 기술된 전쟁실기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된 전쟁실기로 분류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비록 제명으로 인해 일기체 전쟁실기로 오인할 수 있지만 始終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로 분류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송암 『용사일기』의 경우 몇몇 장면에서 일기체 형식도 드러나고 있어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예는 기술의 형식이 반드시 서술의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된 전쟁실기의 경우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이후에 다시 떠올리며 이를 재조합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한 송암 『용사일기』 중 몇몇 장면에서 일기체 형식을 차용하여 명확한 일자가 드러내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억에 의존한 전쟁실기에서 일기체 형식을 차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방식에 있어서 기사체 형식으로 과거를 기술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 명확한 시간을 노출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당시의 현장감이나 기술의 사실성을 전달시키고자 함이다. 즉 기억에 의존한 기술은 사실 행위나 사건의 흐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체처럼 시간의 순차성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기억에 의존한 기술에서 일기체 형식을 취하는 것은 일기체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건이나 행위 또는 주제에 대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독자와의 경험의 공유, 감정의 교감, 호응 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암 『용사일기』에서 일기체 형식이 나타나는 장면은 학봉이 송암을 처음 만나는 장면, 학봉이 경상좌도로 부임 했다가 경상우도로 오게 되면서 송암과 再會하는 장면, 학봉이 다시 경상우도에서 경상좌도로 가게

되는 장면, 학봉이 重病을 앓기 시작하는 장면, 학봉이 진몰하는 장면 등으로 사실 상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일기체 형식을 차용하여 기술하는 것은 이 장면들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그 위상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기체 형식의 전쟁실기의 경우 매일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다보니 그 날 일어났던 사건이 지니고 있는 중요도를 판단 한다거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기술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사실 상 어렵다. 그것은 매일 매일의 일상이 각기 다른 시·공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에게 매일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일상 중 하나하나의 사건 모두가 일기체 전쟁실기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에 의한 기술은 과거를 기술하는 것이기에 사건의 결말과 사건이 지니는 의미 및 중요도를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기술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과 기술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작자의 몫이기에 작자의 의지에 의해 작품 내에서 플롯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은 작품 속에 투영되기가 매우 용이하다.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작품 속에 투영된다는 것은 작자가 작품에서 알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작자가 감추고 싶은 부분은 쉽게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작품을 작자의 의도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송암 『용사일기』의 경우 학봉의 사후 약 4년 뒤에 기술되었다. 이러하다 보니 주인공이 생각하는 사건의 중요도 및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 기술의 우선순위에 있어 실제 작품의 주인공인 학봉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자리를 대신 하는 사람이 바로 작자인 송암

이다.

또 학봉의 사후에 기술되다 보니 아무리 상세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학봉 생전의 현장감이나 사실성은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송암은 우선 학봉의 뛰어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는 작자의식을 바탕으로 학봉의 뛰어난 업적과 학봉의 인품이 돋보일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을 것이다. 그 장면 속에 송암은 자신의 感情을 移入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⁹⁾ 또한 작자의 親疎關係와 利害關係 등도 작품을 전개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송암 『용사일기』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쉽게 포착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망우당을 내세워 김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작품 속에서 기술하거나 또는 학봉이나 망우당의 업적을 자주 칭송하는 것 등이다.³⁰⁾

송암 『용사일기』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기술된 전쟁실기로서 지니는 문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작자는 작품 내에서의 사건의 중요도 및 기술의 우선순위를 작자의 의도대로 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플롯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그 플롯 내에 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은 충분히 녹아들 수 있다.

29)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학봉과 송암이 만나는 장면으로 송암은 이 장면에서 전지적 작자시점을 활용하여 학봉의 송암에 대한 절대적인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30) 이 밖에도 영남 3대 의병장인 김면, 정인홍, 광재우를 호칭할 때 김면의 경우 대부분 '김대장'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정인홍의 경우 반대로 '정인홍'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광재우의 경우 송암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광대장', '광재우'라는 호칭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송암의 親疎關係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송암 『용사일기』내에서 송암의 남명학과 동문들과의 친소관계는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송암 『용사일기』가 기술된 시기 및 퇴계학과와의 교류 등 당시 政治史와도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다.

V. 결론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의 참모로 임진왜란을 경험한 송암의 전쟁실기로서 인물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된 매우 독특한 전쟁실기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암 『용사일기』는 학봉의 사적을 자세히 기록한 전쟁실기로 학봉의 가문, 학봉의 관력, 임진왜란 전후의 학봉의 업적, 학봉의 죽음 순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기존의 전쟁실기가 주로 전쟁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이나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사체 형식인데 비해 인물 중심의 전쟁실기라는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둘째, 송암 『용사일기』는 작품 속의 주인공과 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전쟁실기로 구분할 수 있다. 주인공과 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자가 매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작자는 전지적 입장에서 작자의 집필의도에 따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셋째, 송암 『용사일기』는 현재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되지 않고 과거의 사실을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자가 작품 내에서의 사건의 중요도 및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플롯의 형성과 작품 내에서의 작자의식의 투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물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작자와 주인공이 서로 불일치하며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가 당대 전쟁실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임병양란 이후 기술되었던 또 다른 의미의 전쟁실기와 송암 『용사일기』는 매우 유사하다. 임병양란 이후의 전쟁실

기는 어지러운 신분질서 및 흔들리는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선조들의 업적을 顯彰하여 가문의 드러내기 위해서 후손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기술되었다.

임병양란 이후의 전쟁실기가 임병양란 당시 활약한 인물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점, 작자와 주인공이 불일치 한다는 점,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사적들이 나중에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송암 『용사일기』와 매우 닮아 있다. 또한 실제로 송암 『용사일기』는 임병양란 이후 등장하는 전쟁실기에서 차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의미에서 송암 『용사일기』는 임병양란 이후 등장하는 전쟁실기의 출발점 내지 典範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송암 『용사일기』의 경우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나 작자의 지나친 감정개입 등의 문제가 전혀 없진 않지만 당대 전쟁실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임병양란 이후 전쟁실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쟁실기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郭再祐, 『忘憂堂全書』, 광망우당기념사업회, 신흥인쇄소, 1987.
 _____, 『國譯 忘憂先生文集』(洪瑀欽 譯), 韓國巫俗博物館出版部, 1996.
 金 沔, 『松菴實紀』
 金誠一, 『國譯 鶴峯全集』, 學峯先生紀念事業會, 1976.
 金麟煥, 『龍蛇日記論考 - 松巖李魯 記錄의 問題點 辯正』, 한국정경사, 1977.
 _____, 『龍蛇日記辨訛錄』, 한국정경사, 1977.
 李 魯, 『龍蛇日記』, 全圭泰 譯, 乙酉文化社, 1974.
 _____, 『龍蛇日記』, 李載浩 譯, 錦江出版社, 1979.
 鄭仁弘, 『來庵集』, 亞細亞文化社, 1983.

- 고령대가야박물관·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松庵 金沔과 壬亂義兵』, 2005.
-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活動』, 민족문화 학술총서 24, 혜안, 2001.
-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화』, 민음사, 1992.
- 蘇在英,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研究院, 1980.
- 柳基龍, 『韓國 記錄文學 研究』, 螢雪出版社, 1978.
-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 鄭羽洛, 『남명학과의 문학의 철학적 접근』, 도서출판 박이정, 1998.
- _____, 『남명학과의 문학적 상상력』, 도서출판 역락, 2009.
- 黃湏江, 『韓國敘事文學研究』, 檀大出版部, 1972.
- _____,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고령문화원, 『송암선생 일대기』

- 李東根, 「『壬亂戰爭文學』研究」, 서울대학교 碩士學位 論文, 1983.
- _____, 「朝鮮後期 實存人物의 '私轉'研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 論文, 1989.
- 李琮衍, 「壬辰倭亂 捕虜實記文學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3.
- 李雨卿, 「朝鮮朝 「日記文學」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9.
- 金康植, 「松庵 金沔의 義兵活動」, 『南冥學研究』第2輯,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 蘇在英, 「壬亂被虜들의 捕虜體驗」, 『旅行과 體驗의 文學』,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5.
- _____, 「壬辰倭亂과 小說文學」, 『임진왜란과 한국문화』, 민음사, 1992.
- 李東根,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冠嶽語文研究』第20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 李琮衍, 「壬亂 實記의 創作動因과 性格」, 『睡蓮語文論集』20집, 부산여대 국어교육과, 1992.
- _____, 「實記의 文學的 特徵」, 『韓國文學論叢』15집, 韓國文學會, 1994.
- 張庚男, 「壬亂 實記의 文學的 特性 考察」, 『승실어문』 제11집, 승실어문연구회, 1994.
- _____, 「壬亂 實記文學의 장르적 性格 연구」, 『국어국문학』 116호, 승실어문연구

회, 1996.

_____, 「壬亂 實記文學의 敘述特徵 研究」, 『승실어문』 제13집, 승실어문연구회, 1997.

黃湜江,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壬辰倭亂과 韓國文學』, 민음사, 1992.

S. 채트먼(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談論(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0.

劉勰 지음(최동호 역편), 『文心雕龍』, 민음사, 1994.

Abstract

A Discussion on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ongam's Diary Titled 'Yongsa Ilgi'

Choi, Jae-Ho

'The Yongsa Ilgi', a diary written by Songam Iro(松巖 李魯)(1544~1598) is an original war history recorded around the private merits of Hakbong Seong-il Kim(鶴峯 金誠一), a hero who took a brilliant part in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from 1592 to 1598).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ongam's 'Yongsa Ilgi'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Songam's 'Yongsa Ilgi' gives further descriptions about war history on the basis of Hakbong's private merits. Most of war histories recorded in same days as 'Yongsa Ilgi' take a form of diary that records daily matters of warfare or are written primarily on the basis of major daily warfare events. That is why Songam's 'Yongsa Ilgi' has mor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itself.

Secondly, Songam's 'Yongsa Ilgi' is characterized by its author who is not consistent with its hero in diary. Such an inconsistency between author and hero may help author to keep his objective viewpoints (without any subjective viewpoint), but it is interesting that the author took more subjective perspectives to describe his diary works.

Thirdly, the descriptions of Songam's 'Yongsa Ilgi' are based on previous facts, not present matters, so that its author could describe his diary as he intended.

Songam's 'Yongsa Ilgi' is different from other contemporary war histories during the period of Imjin Waeran, but is very similar to war histories written after Imjin Waeran and Byeongja Horan in the sense that the 'Yongsa Ilgi' contained daily descriptions mainly about personal actions of people, and was characterized by inconsistency between

author and hero, and focused on describing historical facts in past. Based upon these characteristics, it may be carefully implied that Songam's 'Yongsa Ilgi' was possibly a starting point of war histories authored after 2 major medieval wars like Imjin Waeran and Byeongja Horan around Korean peninsula.

Key Word

War history, Yongsa Ilgi, Songam, Hakbong, private merits, author, hero, starting point of writing

▪ 논문투고일 : 2010.12.1 심사완료일 : 2011.1.27 게재결정일 : 2011.2.1